메시지 6

예레미야서에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

성경: 창 2:8-9, 16-17, 렘 2:13, 15:16, 19, 23:5-6, 31:31-34, 40:5-6, 13-14

Ⅰ. 우리는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형상과 모양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닮은 데서 볼 수 있다.

A.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창조하신 것에는 '인류'가 없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종류에 따른 것, 곧 하나님 종류였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창 1:24-26, 2:7.

B. 창세기 18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 말한다. 이 세 사람 중 하나는 그리스도 곧 여호와이셨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다(19:1). 이것은 육체 되심이 일어나기 이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하 20:7, 사 41:8, 약 2:23.

C. 하나님의 천사(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이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셨다 — 삿 13:3-6, 22-23.

D.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이전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 곧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 앞으로 인도되셨다.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져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E.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 혹은 예시(豫示)였다 — 롬 5:14.

F.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 골 1:15.

G. 말씀(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요 1:14)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지만(롬 8:3), 육체의 죄는 없으셨다(고후 5:21, 히 4:15).

H.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 안에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 빌 2:6-8.

I.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행 7:56).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들로 오르신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심을 의미한다(참고 영한 동번 찬송가 132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15장)).

메시지 6 (계속)

J.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주 예수님은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실 것임을 보여 준다.

K.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우리 믿는 이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며,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우리를 그분의 많은 형제들로 만드는 그분의 부활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종류, 곧 '하나님-사람 종류'가 되었다.

L.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라고 말한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은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M. 빌립보서 2장 15절은 우리가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되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며, 그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는 것에 대해 말한다.

N.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 빌 3:21.

O.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고도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 요일 3:2하.

P. 이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은 "앉아 계신 분(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 같았으며"라고 말한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하나님의 외양은 벽옥과 같다.

Q.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곧 벽옥 같다(11하절).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고, 성벽의 첫째 기초 또한 벽옥이다(18상, 19절).

1.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모두 벽옥의 외양을 가질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결론과 완결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새 예루살렘이다. 신성은 인성의 거처가 되고, 인성은 신성의 집이 된다.
2. 이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안에서 밝고 찬란하게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벽옥 곧 하나님과 같은 외양을 지니도록 신화(神化)되는 과정에 있다 — 계 21:11, 23.

3.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 곧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진리를 듣는 것은 큰 축복이다.
4. 결국 하나님-사람들은 승리자들,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의 시온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올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를 마감할 것이다 — 참고 시 48:2과 각주 1.

Ⅱ.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을 보여 준다.

A.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 곧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과 대립되는 생명나무의 원칙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타나 있다. 이 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근본적인 죄를 계시해 준다.
   1. 첫 번째 죄는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죄는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을 자신들을 위해 판 것이었다.
   2. 성경에 있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하나님 자신 이외의 그 무엇을 그들의 근원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음을 시사하셨다. 생명나무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취하는 것이다 — 창 2:8-9.
   3.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 자신의 누림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내는 문제였다.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4.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사탄을 상징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보여 준다(창 2:8-9, 16-17). 이스라엘은 생명나무에서 지식나무로, 생수의 원천에서 저수조들(우상들)로 빗나갔다.

B.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 곧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임을 가리킨다 — 창 2:8-9.

메시지 6 (계속)

1.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 — 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 — 요 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식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시다.
2.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유기적이고도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동화시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되시게 하는 것이다 — 계 2:7, 요 6:57, 63.
   a.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요 6:63.
      1) 그분은 이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고전 15:45하), 그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신다.
      2)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엡 6:17-18),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는다.
   b.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체현인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 곧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렘 15:16, 엡 6:17-18, 벧전 2:2, 히 5:13-14, 겔 3:1-4.

Ⅲ.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A. 그달리야의 사례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사람의 사례이다. 비록 그달리야가 하나님의 신언자인 예레미야를 돌보는 데 신실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렘 40:5-6, 13-14.
   1. 그달리야는 하나님을 그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분과 하나 되지 않았으며,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다면,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2.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선한 기쁨의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떠한 의견도 갖지 않아야 한다 — 비교 고후 1:8-9, 1:12과 각주 2.
   3. 성경의 원칙, 특별히 신약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할 것이다 — 요 15:4-5, 요일 2:28, 3:24.

4. 우리가 첫 번째로 취해야 할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선한 기쁨을 표현하는 그분의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선호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대언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말해 냄으로 공급을 줄 것이다 — 렘 1:6-9.

B.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 내면 / 네가 나의 입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다 — 렘 15:19, 23:29, 비교 16절.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고 극도로 고귀하시며 뛰어난 가치를 지니신 것을 보아야 한다 — 빌 3:7-8, 벧전 2:7, 비교 4, 6절.
2.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겨서, 보양하는 젖과 신선한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맛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 욥 23:12, 벧전 2:2-5, 시 119:103, 신 8:8, 아 4:11상.
3.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땅에 속한 모든 재물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신성한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발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모든 성도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 — 시 119:72, 9-16, 엡 3:8, 고후 6:10, 벧전 4:10-11.

Ⅳ.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패배한 숨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비교 수 7:3-4, 9:14).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그분은 다만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사람들로 만드신다.

A. 하나님-사람들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그분과 하나 되기를 실행해야 한다(롬 8:4, 고후 2:10, 갈 5:16, 25).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길이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면, 우리에게는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메시지 6 (계속)

B. 이스라엘 자손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렘 42:1-43:2).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목적을 알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살고 그분으로 조성되어 땅 위에서 그분의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C.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뜻과 선한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자신의 선호를 추구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을 파는 것이다 — 렘 2:13.

V.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과 의롭다 함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의 결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법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렘 31:33).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 렘 23:5-6, 31:31-34, 계 21:2.

© 2020 Living Stream Ministry